

경건주의자들의 칭의와 성화 이해 - 슈페너와 아놀드를 중심으로

이상조(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I. 들어가는 말

경건주의는 일반적으로 17세기에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18세기 유럽 대륙의 개신교에서 일어난 종교적 신앙각성운동(Erweckungsbewegung) 속에서 꽃을 활짝 피운 운동으로, 앵글로 색슨족의 청교도주의와 더불어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운동이다.¹⁾ 유럽 땅에서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는 중세적인 '하나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종교전쟁과 교파주의적인 교리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17세기의 유럽은 '중세의 이념', 즉 교회 위에 세워진 정신적, 문화적, 사상적 통일성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서서히 해체되면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고 세속적인 문화와 종교적인 이념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즉, '단일한 기독교'가 여러 개의 다양한 교파와 교리로 분열하여 각자의 진리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가 체결되면서 중세 기독

1) Johannes Wallmann, *Der Pietismus*, Göttingen 2005, 21; Martin Brecht, "Einleitung", *Geschichte des Pietismus Bd.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1.

교적인 단일 문화는 서로 경계를 정하고 구별하면서 교파와 교회, 국가와 정치적인 다양성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끝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교파와 교회가 다양화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학과 교회의 영역에서 일어난 교파주의적 교리논쟁이었다. 루터파, 칼빈주의적 개혁파 그리고 로마 가톨릭파는 자기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치열한 교리논쟁을 하였다. 대학의 강단 신학은 물론이요 교회의 설교단에서 조차 정형화되어버린 교리적인 설교가 선포되면서 신앙인들은 '경건의 위기'(Frömmigkeitskrise)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태동한 것이 바로 경건주의였다. 따라서 경건주의는 17세기 교파주의적인 시대를 극복하고자 신앙인들의 관심을 교리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삶에 집중시켰으며 경건한 삶과 '거룩함'을 강조함으로써 '경건의 방향전환'(Frömmigkeitswende)을 시도한 운동이었다.²⁾

그렇다면, 경건의 방향을 교리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삶으로 돌린 경건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건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거룩한 삶의 윤리적 완전성(Vollkommenheit)을 지향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천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도덕주의자들 혹은 윤법주의자들이었는가?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주의를 이와 같은 윤법주의적인 도덕주의와 비슷한 범주에서 생각하곤 한다.³⁾ 극단적으로 오

2) Johannes Wallmann, *Der Pietismus*, 28-29.

3) 경건주의자들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철저히 윤법주의적이면서도 윤법적인 삶을 지향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이 1880-1886년에 걸쳐 세 권으로 된 『경건주의의 역사』(*Geschichte des Pietismus*)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리츨은 17~18세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경건주의가 개신교에는 본질적으로 낯선 중세의 로마 가톨릭적인 신비주의적 요소를 개신교적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온 것으로서 '순전히 개인적이고 세계 도피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경건주의 본질에 대한 리츨의 이러한 규정은 이후 카르트(Karl Barth)와 틸리히(Paul Tillich) 등의 신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수용되어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신학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리츨식의 경건주의의 이해는 20세기 초엽부터 강력하게 비판

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건주의자들을 개신교 안에 있는 신(新)펠라기우스 주의자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 사람들,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중생에 대한 신인협력적인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건주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실 그들이 인간 구원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칭의 및 중생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어권 경건주의⁴⁾로 범위를 한정시켜 교회 경건주의⁵⁾의 대표자인 필립 야콥 슈페

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독일어권의 교회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특히 1964년 '경건주의 연구를 위한 역사위원회'(Historische Kommission zur Erforschung des Pietismus)를 결성하여 소위 '경건주의 연구의 르네상스'를 주도하였다. 이 후 일군의 경건주의 학자들이 경건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엄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경건주의 분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철저한 문헌작업을 거쳐 이전까지의 경건주의 연구를 비판하였는데 특히, 경건주의를 세계 도피적이었다고 평화한 리츨의 견해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왜곡되어왔음을 밝혔다.

4)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 경건주의의 개념 규정과 역사적 기원에 대해 아직까지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않는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를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평가하면서 영국의 청교도운동에서 경건주의의 역사적인 기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나태레 레포르마치'(nadere reformatie)에서 역사적인 기원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을 경건주의의 시발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종류의 입장을 취하는데, 첫째는 요한 아른트와 그의 『참된 기독교에 관한 네 권의 책』(Vier Bücher vom wahren Christentum, 1605-1610)을 경건주의의 시작으로 보는 입장이 있으며, 둘째로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에 의한 '경건한 모임'(Collegium Pietatis, 1670)의 시작 또는 그의 『경건한 소원들』(Pia Desideria, 1675)의 출판을 경건주의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셋째로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의 라이프치히의 소요 즉, 루터교 정통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을 경건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한편, 경건주의 연구자 발만(Johannes Wallmann)은 독일 경건주의를 광의적 의미(im weiteren Sinn)와 협의적 의미(im engeren Sinn)로 나누기도 하는데,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는 교회에서 삶으로 강조점을 옮겨 경건의 방향전환을 시도한 요한 아른트(Johann Arndt)를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협의적인 의미(im engeren Sinn)에서 볼 때는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한 종교적 각성운동을 전개했던 슈페너를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각각 여기기도 한다.

5) 경건주의 학자들은 독일어권 경건주의를 교회적인(kirchlich) 경건주의와 급진적인(radikal) 경건주의로 나누어 생각하기도 하는데, 슈페너와 프랑케를 중심으로 진행된 교회적인 경건주의가 기존의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교회 개혁을 추구하였다면, 급진적인 경건주의는 제도적인 교회를 '바벨'이라 비난하며 거부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던 신비주의적이고 성령주의적인 특징을 지닌 자들을 일컫는다. 급진적인 경건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결혼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진 채 홀로 국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띤 사람도 있었고, 별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친첸도르트에 의한 헤른후트파 협체단은 위의

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와 급진적인 경건주의⁶⁾의 대표자인 고트프리드 아놀드(Gottfried Arnold, 1666-1714)의 중생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경건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17세기 루터교 정통주의의 ‘칭의’에 대한 신학사적 소고(小考)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칭의’(의롭게 하다: iustificare) 개념을 무엇보다도 죄인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죄선고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율법(Law)이 우리 양심에 고발하는 기능과 복음(Gospel)이 죄 용서를 약속해 주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일깨워 줄 때 회개가 일어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 인간에게 칭의가 주어지며 이 칭의에 의해 인간은 구원을 얻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칭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롭다고 믿어주거나 전가하거나 인정하는(imputare, reputare)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에게 가치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죄를 전가하지 않음, 곧 죄의 용서에 있다.”⁷⁾

두 분류에 속하지는 않는다. 예나하면 헤른후트파는 기준의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급진적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신비주의적이거나 성령주의적인 과격성을 띠지도 않았으며, 전통적인 기독론 중심의 기독교 신학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6) 일반적으로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제도적인 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들은 여러 형태를 띠고 있는데, 세상을 등지고 결혼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과 자기들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제도로서의 교회 기관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입장은 취했다. 이러한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의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요한 앤트 쉬츠(Johann Jakob Schütz, 1640-1690), 요한 빌헬름 페터센(Johann Wilhelm Petersen, 1649-1726)과 그의 부인 요한나 엘레오노라 페터센(Johanna Eleonora Petersen, 1644-1721), 요한 콘라트 딥펠(Johann Konrad Dippel, 1673-1734), 에바 폰 부틀라(Eva von Buttler, 1670-1721) 그리고 고트프리드 아놀드(Gottfried Arnold, 1666-1714).

7) WA 56, 39, 8f. 『로마서 강해』(Römerbriefvorlesung 1515/1516) — 여기서 “의롭게 되는”(iustificari)

동시에 루터는 칭의라는 말을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의 도움으로 인간이 무죄 선고를 받고 변화하여 새롭게 되는 인간의 개신(Erneuerung)을 표현할 때 쓰기도 했다. 이 때 사용되는 칭의 개념은 인간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며 부활에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과정(Prozeß)으로서 이해되기에 칼뱅 중심의 개혁교회 전통에서 보면 성화에 해당한다.⁸⁾ 따라서 루터는 칭의 개념 안에서 죄 용서와 개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후자보다는 전자의 의미가 많이 강조되고 부각되었기에 루터적인 칭의 이해는 칼뱅식의 적극적인 성화 개념이 발전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⁹⁾

루터의 칭의 이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루터가 칭의를 말할 때는 언제나 임박한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지평 위에서 전개했다는 사실이다.¹⁰⁾ 루터는 어떻게 인간이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런데 ‘임박한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지평에서 언급되던 루터의 칭의론은 루터의 동료였던 멜란히톤에 의해서 그리고 루터 사후(死後) 루터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교리적 변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법적 개념으로 정위되어 오직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轉嫁) 의미로 국한되었다.¹¹⁾ 이후 17세기 루터교 정통주의는 객관적이고 사법적 의미로서의 칭의와 그것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수용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것”(iustum apud Deum reputari)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8) Bernhard Lohse,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Zusammenhang*, Göttingen 1995, 276.

9) 루터 전문가 로제(Bernhard Lohse)는 일차자료에 근거하여 루터의 ‘칭의’ 개념이 죄의 용서 또는 무죄 선고(Freispruch)적인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개신(Erneuerung)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Bernhard Lohse,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Zusammenhang*, 278-280.

10) Albrecht Peters, “Rechtfertigung in der Reformation,” *Einführung in die Lehre von Gnade und Rechtfertig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141-156; Bernhard Lohse, *위의 책*, 276.

11) Bernhard Lohse, *위의 책*, 278-279.

원의 순서(ordo salutis)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개발했다.¹²⁾

이러한 17세기 정통주의에 반(反)하여 등장한 경건주의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청의에 대한 조직적 묘사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청의의 체험에 관심을 가졌으며 회심 경험으로 증명되는 중생과 외적인 실천으로 판단되는 성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적 청의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청의를 속죄의 투쟁(Busskampf)을 경험한 죄인의 중생과 동일시하였다.¹³⁾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은 청의 대신에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더 즐겨했다. 그들은 중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위 ‘옛 아담이 죽고 새로운 인간이 형성되고 신적 상태의 완전함으로 새로워지는(개신되는) 인간 이해’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경건주의자들의 이러한 인간 이해는 한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옛 아담이 죽고 새로운 인간이 형성되어 신적 상태의 완전한 상태로 새로워지는 중생을 하나의 과정(Prozess)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중생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경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청의 이해와 비슷하지만, 중생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인간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윤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냄새가 강하게 날 수 있다. 중생에 대한 이러한 다른 이해의 대표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살펴보게 될 교회 경건주의의 대표자인 필립 야콥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와 급진적인 경건주의의 대표자인 고트프리드 아놀드(Gottfried Arnold)이다.

III. 필립 야콥 슈페너의 ‘중생’ 이해

20세기 중반 독일어권 학자들 사이에서 교회 경건주의자인 필립 야콥 슈페너(Pilipp Jakob Spener, 1635-1705) 신학의 중심이 무엇이나를 놓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있었다. 에마누엘 히르쉬(Emanuel Hirsch)는 ‘루터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칼 홀(Karl Holl)의 신학적 입장 위에서 슈페너의 신학이 전통적인 루터교 정통주의의 청의론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슈페너의 주된 관심사는 루터의 청의 신앙을 개개인의 삶의 근저로 깊이 가라앉혀서 그 청의 신앙이 그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규정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¹⁴⁾

이에 반해, 마틴 슈미트(Martin Schmidt)는 슈페너 신학의 중심이 히르쉬가 주장하듯이 루터교 정통 위에서 있는 청의론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슈페너가 신비주의적인 성령주의자 크리스티안 호부르크(Christian Hoburg, 1607-1675)의 『설교직의 오용에 대한 거울』(Spiegel der Mißbräuche beim Predigant, 1644)에서 영향을 받아 성령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한 중생에 있다고 보고 과정(Prozess)으로 이해되는 중생을 슈페너 신학의 중심 주제로 규정하였다.¹⁵⁾

한편, 에르하르트 폐슈케(Erhard Peschke)도 슈페너의 중생론과 프랑케의 회심론을 비교하면서 슈페너 구원론의 핵심을 역시 중생으로 파악하였다.¹⁶⁾ 폐슈케에 의하면, 슈페너의 관심사는 옛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중생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12) Alister McGrath, *J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From 1500 to the Present Day*,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6f.

13)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 *Justification by Faith*, ed. H. George Anderson, T. Austin Murphy, Joseph A. Burges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38-41.

14) Emanuel Hirsch, *Geschichte der neuern evangelischen Theologie im Zusammenhang mit den allgemeinen Bewegungen des europäischen Denkens*, II, 1951 (1975), 138ff.

15) Martin Schmidt, *Wiedergeburt und neuer Mensch*, (AGP 2), 1969, 129-168; 169-194.

16) Erhard Peschke, *Speners Wiedergeburtstheorie und ihr Verhältnis zu Franckes Lehre von der Bekehrung*, in: *Traditio-Krisis-Renovatio aus theologischer Sicht*, Festschrift Winfried Zeller, 1976, 207.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 슈페너 구원론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였다.¹⁷⁾ 한마디로 말해 슈페너 신학의 중심적인 관심사는 인간의 중생, 곧 앓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¹⁸⁾ 따라서 폐수케도 슈미트처럼 슈페너의 신학적 핵심을 ‘과정으로서의 중생’ 이해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반면, 요한네스 발만(Johannes Wallmann)은 폐수케와 슈미트식의 중생 이해에 반대하며 자신의 논문 “필립 야콥 슈페너에게 있어서 중생과 개신”(Wiedergeburt und Erneuerung bei Philipp Jakob Spener)¹⁹⁾에서 슈미트의 주장이 슈페너의 일차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밝혔다. 발만은 슈페너가 글이나 편지 혹은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중생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 안에서의 성장’(Wachstum im Glauben)이라는 주제 속에서 개신(Erneuerung)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²⁰⁾ 오늘날 경건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발만의 연구결과 위에서 슈페너를 연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슈페너의 중생과 개신에 관한 개념과 내용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 소위 ‘경건주의의 방향 제시서’(Programmschrift des Pietismus)라 일컬어지는 자신의 『경건한 소원』(Pia Desideria, 1675)에서 슈페너는 중생(Wiedergeburt)이라는 단어 자체를 겨우 세 번 사용하였다. 점진적인 중생 개념에 대한 고전적인 성경구절로 여겨지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은 『경건한 소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경건한 소원』에서 슈페너가 개개인의 중생을 요구한 혼적은 어디에도 없다.²¹⁾ 슈페너는 사용한 중생 개념은 주로 목회 현장에서 했던 설교 본

17) 같은 책.

18) 같은 책, 213.

19) Johannes Wallmann, “Wiedergeburt und Erneuerung bei Philipp Jakob Spener”, in: PuN 3 (1977), 7-31.

20) 같은 책. 슈미트의 견해를 반박한 발만의 견해에 관하여는 지형은의 『개신, 시대의 요청』(한글출판사, 2003), 202-208쪽의 각주 66번을 참조하시오.

21) Johannes Wallmann, “Wiedergeburt und Erneuerung bei Philipp Jakob Spener”, 17.

문이나 편지글에서 등장하고 있다.

처음에 슈페너가 ‘중생’을 주제로 설교하기 시작한 때는 그의 프랑크푸르트 목회사절(1666-1686)이던 16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슈페너는 ‘중생’과 관련된 주제로 총 여덟 편의 설교를 하였으며, 설교 본문을 이후 1686년 『기독교적인 참회설교』라는 제목으로 편집하여 출판하였다.²²⁾ 그가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고 있던 경건모임(Collegia pietatis)이 분열되는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1666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사역을 시작한 이후 슈페너는 1670년 8월부터 자신의 목사관에서 소위 경건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이 경건모임은 일주일에 두 번씩 (주일 오후와 수요일 오후)에 이루어졌으며, 1676년 이후부터는 월요일 오후와 수요일 오후에 모였다. 이 후 경건모임은 계속해서 발전하였는데, 시작한지 5년이 지났을 때는 50명으로 늘어났으며 10년이 지날 때에는 100명을 넘어섰다.²³⁾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모임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슈페너식의 경건모임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일부가 기성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분리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경건모임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핵심 인물로 여겨지던 범률 가 요한 야콥 쉬츠(Johann Jakob Schütz, 1640-1690)가 1670년대 중반이후 부터 기성 제도권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더니 1683년부터는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을 이끌고 따로 모임을 가졌다.²⁴⁾ 이들은 제도권 교회에는 아예 희망이 없다고 비판하며 ‘바벨’(Babel)과도 같은 제도권 교회를 떠나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을 따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Philipp Jakob Spener, *Christliche Bußpredigten II*, Frankfurt am Main 1686 (?1700), 304-412.

23) Johannes Wallmann, *Der Pietismus*, 76-79; Martin Brecht, “Philipp Jakob Spener, sein Programm und dessen Auswirkungen”, *Geschichte des Pietismus Bd. I*, 297-298.

24) Johannes Wallmann, *Der Pietismus*, 79; Martin Brecht, “Philipp Jakob Spener, sein Programm und dessen Auswirkungen”, 296-297.

슈페너도 제도권 교회가 병들었으니 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새롭게 될 가능성에 여전히 있다고 믿음으로써 탈교회적인 분리주의자들을 반대했다.²⁵⁾ 이 과정을 겪으면서 1684년 슈페너는 중생과 관련해서 여덟 편의 설교를 하였던 것이다. 슈페너가 보기에도 분리주의자들은 점진적인 중생 이해를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 완전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기에 전통적인 루터의 청의 이해에서 벗어났다고 보았던 것이다.

슈페너는『기독교적인 참회설교』이외에도 1695년 중생을 주제로 한 설교들을 모아『중생에 관한 매우 중요한 조항』(Hochwichtige Artikel von der Wiedergeburt, 1695)이라는 제목의 설교집을 출간했다.²⁶⁾ 총 66편의 설교 중 9편은 중생의 필요성과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5편은 중생 자체에 대해서, 나머지 52편은 중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각각 다루고 있다.²⁷⁾ 분량과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슈페너의 관심은 중생 자체 보다는 중생한 사람의 생활 상태, 중생의 열매 즉 개신(Erneuerung)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슈페너에게 있어서 중생한 사람의 생활 상태는 중생과 구별되는가? 슈페너에게 있어서 옛 아담이 죽고 새로운 인간이 형성되어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상태로 개신되는 중생은 소위 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은 '과정'(Prozess)으로서의 중생인가? 슈페너는 자신의 편지들을 정리해서 편집해놓은『신학목상 제1권』(Theologische Bedencken, I)²⁸⁾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이해한 '중생' 개념을 간략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5) Martin Brecht, 위의 책, 316-319.

26) Johannes Wallmann, "Wiedergeburt und Erneuerung bei Philipp Jakob Spener", 20.
27) 같은 책, 각주 67번 참조.

28) Philipp Jakob Spener, *Theologische Bedencken* (Halle: Waisenhaus, 1700-1702). 슈페너는 자신의 생애 말년 자신의 편지들을 편집하여『신학목상』(Theologische Bedencken)이란 제목을 붙여 네 권으로 출판했다. 모두 합하여 3000여 쪽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다.

나는 온전함(vollkommenheit)은 중생의 조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erneuerung)의 조항에 속한다고 여긴다. 우리가 중생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 중생에는 세 조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 신앙의 점화, 2) 하나님의 자녀 됨을 받아들이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의를 고려한 청의, 3) 새로운 인간 창조.²⁹⁾

슈페너에게 있어서 중생이란 '믿음을 점화시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의한 청의요,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슈페너의 '중생' 개념은 루터의 청의를 중생이라는 단어로 단순치환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슈페너는 청의로서의 중생과 개신(Erneuerung)을 철저히 분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개신은 성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중생은 구원사건(Heilsgeschehen)이요, 이를 통해 인간은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슈페너에게 있어서 중생은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요 근거이다.³⁰⁾ 그에게 있어서 중생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출입문이라면, 개신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점차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과정이다.³¹⁾ 하지만,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개신의 과정을 통해 완전함의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이 개신을 통해 완전함(Vollkommenheit)에 이르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29) Philipp Jakob Spener, *Theologische Bedencken I*, 1, ³1712, 305. „Ich halte aber davor / es gehöre die materie der vollkommenheit nicht in den articul der wiedergeburt / sondern der erneuerung. Wo wir die wiedergeburt recht eigentlich ansehen / bestehet sie in diesen 3. Stücken / in der entzündung des glaubens / rechtfertigung samt der annehmung an kindes statt / und schaffung des neuen menschen.“

30) Johannes Wallmann, "Wiedergeburt und Erneuerung bei Philipp Jakob Spener", 26.

31) Philipp Jakob Spener, *Der hochwichtige Articul von der Wiedergeburt / Dero Ursachen / Mittel / Art / Pflichten / Würden / Kennzeichen und übrigen dahin gehörigen Materien ... In sechs und sechzig Wochen-Predigten ...*, Frankfurt (Main) (1695) ²1715, 93. „... daß die wiedergeburt das erste / und gleichsam der erste eingang in dem Christenthum / seye / auf welche nachmal die erneuerung folget / in dero wir wachsen müssen.“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³²⁾ 그것이 이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요 목표이다.

이상에서 슈페너의 중생 이해를 살펴본 바, 그는 청의로서의 중생과 개신을 철저히 구분하였다. 슈페너가 종종 자신의 글에서 신앙인들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청의로서의 중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신과 관련되어 있다. 슈페너에게 있어서 개신은 바로 성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슈페너의 주된 관심사는 중생이 아니라 이미 중생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완전함의 추구에 있었다. 따라서 슈페너에게 있어서 중생은 그의 사상의 핵심(본질)이 아니라 교회 개혁을 위한 전제(前提)이다. 그런 의미에서 슈페너식의 교회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에는 인간의 회심을 통한 중생 자체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져서 이 땅위에서 살아있는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 고트프리드 아놀드의 ‘중생’ 이해

교회 경건주의자 슈페너와는 달리 중생을 신학적 핵심으로 놓고 구원론을 전개한 경건주의자들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신비주의적인 성령주의 색채를 지닌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났다. 그들은 전통적인 루터교 정통주의의 청의를 ‘의화’(義化 - 실제로 의롭게 만듦, Gerechtmachung)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청의와 성화를 연결 지어 생각하여 중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³³⁾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중생을 더 이상 죄의 용서라는 개념과 일치하

32) Johannes Wallmann, “Wiedergeburt und Erneuerung bei Philipp Jakob Spener”, 26.

33) 청의 개념을 ‘의화’ 개념으로 이해하여 ‘과정으로서의 중생론’을 주장한 사람들로는 카스파르 슈베크펠트(Kaspar Schwenckfeld), 세바스티안 프랑크(Sebastian Franck), 발렌틴 바이겔(Valentin Weigel), 크리스티안 호크부르크(Christian Hochburg) 등의 성령주의자들이 해당된다.

는 의미로서의 청의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 변화인 동시에 역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루는 새로운 삶의 균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중생은 몇 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옛 아담이 죽고 새로운 인간이 형성되어 신적 형상의 완전함으로 새로워지는 ‘과정’(Prozess)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중생’ 개념으로 인간의 구원 과정을 묘사한 급진적인 경건주의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트프리드 아놀드(Gottfried Arnold, 1666-1714)이다.

오늘날 경건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고트프리드 아놀드는 슈페너, 프랑크, 진젠도르프와 더불어 새로운 경건태도(Frömmigkeitshaltung)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되며³⁴⁾, 영향사적으로 본다 해도 급진적인 경건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³⁵⁾ 우리나라에는 『비당파적인 교회사 및 이단사』(Unparteyische Kirchen- und Ketzter-Historie, 1699-1700)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아놀드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1688년까지의 교회 역사를 일차자료에 근거하여 철저히 연구한 끝에 『비당파적인 교회사 및 이단사』라는 대작을 완성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타락한 역사’(Verfallsgeschichte)로서 제도권 교회의 역사와 ‘경건한 역사’(Frömmigkeitsgeschichte)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서로 대조시키며 전(全)교회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특히 그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부패한 현(現)제도권 교회

34) Friedrich Wilhelm Kantzenbach, “Gottfried Arnold”, in: Martin Greschat (Hg.), *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 7: Orthodoxie und Pietismus*, Stuttgart 1982, 263.

35) Hans Schneider, “Der radikale Pietismus im 17. Jahrhundert”, in: *Geschichte des Pietismus*, Bd. 1, (Göttingen 1993), 410. 아놀드의 생애에 관해 우리말로 소개된 글들 중 참고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상조, “고트프리드 아놀드(Gottfried Arnold):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신학적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논의”, 한국교회사학회 30 (2011), 87-120; 이성덕, “고트프리드 아놀드의 참된 교회의 이상과 교회사 비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 (2010), 109-131; 피터 어브(Peter C. Erb), “고트프리드 아르놀드”, 『경건주의 신학과 신학자들』(The Pietist Theologians, 2005), 카터 린드버그(Carter Lindberg) 편집, 이은재 옮김 (서울: CLC 2009), 357-384; 박종소, “괴테와 이단의 역사 Kirchen- und Ketzterhistorie(1699-1700)”, 한국독일어문학회 15 (2007), 23-42.

를 개혁하기 위한 거울(Spiegel)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놀드는 교회역사서술의 관심을 교리와 제도에 바탕을 둔 제도적 교회가 아닌 개별적 인물들의 신앙적 삶과 개성(Persönlichkeit)에 둘으로 써 근대적인 역사적 사고의 길을 열어 놓았다.³⁶⁾ 이러한 아놀드의 역사서술은 독일 계몽주의와 괴테(Goethe), 헤르더(Herder)에게는 물론尼체(Nietzsche)와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³⁷⁾

하지만, 『비당파적인 교회사 및 이단사』가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 교회사로서 아놀드의 존재감을 세상에 알린 대작(大作)이 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1689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공부를 마친 후 아놀드는 드레스덴(Dresden)과 크레들린부르크(Quedlinburg) 도시에서 과외선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역사 연구에 몰두하였다. 특히 1693년 이후부터는 원시기독교 공동체에 관해 학문적 연구를 깊이 하였는데 그 결과 아놀드는 1696년 자신의 첫 번째 대작(大作)인 『처음 사랑, 즉: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한 진정한 초상화』(*Die Erste Liebe, Das ist: Wahre Abbildung Der Ersten Christen nach ihren Lebendigen Glauben und Heiligen Leben […]*, 1696)³⁸⁾를 출판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아놀드는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1697년 기센(Gießen)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부임 반기까지 했다.³⁹⁾

총 여덟 권으로 구성된 『처음 사랑』에서 아놀드는 단순히 연대기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서술을 시도하진 않았으며, 제도적인 기성교회에 대한 급진적인 반대명제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다. 『처음 사랑』에서 그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을 다루었는데, 제1권에서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중생 과정에 대해서, 제2권에서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행위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제3~7권은 처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와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관해서 각각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8권에서는 콘스탄틴 황제 전환 이후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국교화 되면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생동감 있는 믿음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⁴⁰⁾ 이 중에서 '제1권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중생' 안에서 아놀드는 진정한 회심(wahre Bekehrung), 조명(Erleuchtung), 중생과 하나님의 자녀됨(Wiedergeburt und Kindschaft Gottes),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믿음(lebendiger und tätiger Glaube)과 완전함(Vollkommenheit), 하나님 형상의 회복(Herwiederbringung des Göttlichen Ebenbildes)과 연합(Vereinigung mit Gott) 등의 주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놀드는 여기에서 자신의 신학적 중생론을 전재하고 있다. 그의 관심사는 제도 혹은 기관으로서의 교회 역사에 관심을 기울인 것 이 아니라 중생(Wiedergeburt)에 있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실천적인 경건성을 주된 테마로 삼아 그들의 경건을 설명하기 위해 제1권에서 중생이라는 신학적 인간론(Antropoloige)을 전개하고, 제2권부터는 중생한 사람들 의 침된 예배와 경건생활을 서술하였던 것이다.

『처음 사랑』에 나타난 아놀드의 중생 이해는 슈페너의 중생 이해와는 달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본질적으로 내적 방향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으로서 회심(Bekehrung)과 조명(Erleuchtung)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36) Bernd Moeller,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Grundzügen*, Göttingen 1996, 303.
 37) Hans Schneider, "Der Pietismus", in: Thomas Kaufmann und Raymund Kottje (Hgg.), *Ökumenische Kirchengeschichte*, Bd. 2, (Darmstadt, 2008), 505.
 38) Gottfried Arnold, *Die Erste Liebe, Das ist: Wahre Abbildung Der Ersten Christen nach ihren Lebendigen Glauben und Heiligen Leben […]*, Frankfurt a.M. & Leipzig 1712. 본 논문에서는 1712년에 출판된 세 번째 판을 사용하였다. (이하 『Die Erste Liebe』로 표기함)
 39) Hans Schneider, "Gottfried Arnold in Gießen", in: Dietrich Blaufuß und Friedrich Niewöhner (Hgg.), *Gottfried Arnold (1666-1714). Mit einer Bibliographie der Arnold-Literatur ab 1714 (Wolfenbütteler Forschungen 61)*, (Wiesbaden, 1995), 277.

40) 아놀드의 책 『처음 사랑』의 전체 목차는 다음의 문고판 서적을 참조하시오: Gottfried Arnold, *Die Erste Liebe*, (Hg. von Hans Schneider), Kleine Texte des Pietismus 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2), 9-15.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가 얘기한 참된 신자가 되는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중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심과 조명(Bekehrung und Erleuchtung)

아놀드에 따르면 참된 신자가 되는 시작은 참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교의 올바른 근간을 이루는 회심에서 시작된다.⁴¹⁾ 그런데 회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 부폐했다는 깨달음(Erkenntnis)이 선행되어야만 한다.⁴²⁾ 이 깨달음은 성령을 통해 성취되는데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회심하게 된다. 부폐한 상태에서 인간은 참 빛을 인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⁴³⁾ 죄에 대한 깨달음은 읊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모든 죄의 어머니 격인 무지함(Unwissenheit)을 없애주실 때 비로소 죄에 대한 깨달음이 가능해진다.⁴⁴⁾

회심한 인간은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이끌림 받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노여움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됨으로써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버린다.⁴⁵⁾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모든 죄를 반대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진실로 죄를 미워하도록 활동하신다.⁴⁶⁾ 이러한 적극적인 회심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데, 이러한 믿음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실 때 생긴다.⁴⁷⁾ 성령을 통해 죄를 인식하고 회심하여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된다. 그리고 회심한 인간의 의지는 거룩한 삶을 지

향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심의 열매인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인도한다.⁴⁸⁾

그런데 아놀드는 인간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내적 조명(Erleuchtung)이 필요함을 또한 말한다.⁴⁹⁾ 인간이 회심하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인 과정이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간에게 개방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열 때에만 가능하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마음이 열려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⁵⁰⁾ 이 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비록 인간의 입을 통해 다가오지만 이것은 단지 외적인 길에 불과하다.⁵¹⁾ 이 과정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삶을 자신의 영혼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⁵²⁾ 인간적인 언어로서의 말씀은 외적(äußerlich)이요, 문자적(buchstäblich)이지만, 그리스도는 내적(inwendig)이다.

요약하자면, 아놀드는 회심과 조명의 단계에서 중생의 개별적이고 특별 한 순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생은 인간의 첫 출생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중생이 인간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중생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아놀드에게 있어서 중생은 인간의 일반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⁵³⁾ 이 과정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eine innere Wandlung)를 경험하게 된다. 즉, 중생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육체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기질(Gemüt)과 의미(Sinn)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내적 변화로서의 중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있다.

41) *Die Erste Liebe*, I, 1, 1, 1.

42) *Die Erste Liebe*, I, 1, 4, 2.

43) *Die Erste Liebe*, I, 1, 2, 1.

44) *Die Erste Liebe*, I, 1, 4, 2.

45) *Die Erste Liebe*, I, 1, 7, 3.

46) *Die Erste Liebe*, I, 1, 8, 4.

47) *Die Erste Liebe*, I, 1, 13f, 6.

48) *Die Erste Liebe*, I, 2, 1, 11.

49) *Die Erste Liebe*, I, 3, 1, 18.

50) *Die Erste Liebe*, I, 3, 1, 18.

51) *Die Erste Liebe*, I, 3, 7, 21.

52) *Die Erste Liebe*, I, 3, 6, 21.

53) *Die Erste Liebe*, I, 4, 4, 34.

따라서 아놀드에게 있어서 중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형상(Gotteshenbildlichkeit) 회복과 완전함(Vollkommenheit)

아놀드에 따르면, 중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죄로 인해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복음 선포 속에서 인간은 옛 아담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⁵⁴⁾ 아놀드에게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die Neuwerdung des Menschen)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놀드에게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교의 가장 복되고 최고의 열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다.”⁵⁵⁾ 이것이 중생의 본래적인 목표요 최종적인 내용이다.

아놀드에 따르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간 영혼은 성령을 통해 실제로 변하게 된다. 인간 영혼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높이 올려 지게 되며, 성령을 통해 인간 영혼은 실제적인 변화(eine wirkliche Veränderung)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회개(*metanoia*)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인간 영혼의 실제적인 방향 전환이 바로 중생이다.⁵⁶⁾ 성령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방향설정(Ausrichtung)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신적인 특성과 같은 어떤 것을 얻게 된다.⁵⁷⁾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공동생활(Gemeinschaft)이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

이 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이다. 아놀드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inwendig)에 거주하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⁵⁸⁾ 내면이 바뀌게 된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이며 이런 식으로 중생한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⁵⁹⁾

3. 살아있는 믿음(Tätiger Glauben)

아놀드에 따르면, 중생한 사람은 계명을 성취할 수 있다.⁶⁰⁾ 그런 까닭에 회심은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그 사람이 예전에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 만일 자기를 사랑하고 명예를 쫓는 완고함(Eigenwille)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그는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생은 이러한 완고함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합(Vereinigung mit Gott) 속에서 자신의 완고함은 사라지게 된다.⁶¹⁾

아놀드에게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자신의 의지와 연합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 자신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⁶²⁾ 그런데, 인간 자신이 세상의 한 부분인 한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부인은 곧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사랑, 명예욕, 세상에 대한 탐욕 등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며⁶³⁾,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을 향한 생동감

54) *Die Erste Liebe*, I, 19, 2, 132.

55) *Die Erste Liebe*, I, 19, 1, 131. “Die allerseeligste und vornehmste Früchte des wahren Christenthums ist die Herwiederbringung des verlohrnen göttlichen Ebenbildes.”

56) *Die Erste Liebe*, I, 1, 17, 8.

57) *Die Erste Liebe*, I, 15, 1, 99.

58) *Die Erste Liebe*, I, 4, 14, 39.

59) *Die Erste Liebe*, I, 12, 1, 85.

60) *Die Erste Liebe*, I, 10, 8, 77.

61) *Die Erste Liebe*, I, 9, 3, 70.

62) *Die Erste Liebe*, I, 9, 3, 70.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아놀드는 사랑, 순종, 인내가 믿음의 열매들이라고 보았다.⁶⁴⁾

이상에서『처음 사랑』에 나타난 아놀드의 중생론을 살펴보았다. 그의 중생론에 따르면 성령에 의한 조명으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성령은 인간 안에 믿음을 생성시키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살아있고 생동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활동한다. 이렇게 해서 생긴 믿음은 십자가와 박해 속에서 성장하며⁶⁵⁾,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Herwiederbringung des verlorenen göttlichen Ebenbildes)⁶⁶⁾하는데 있다. 아놀드의『처음 사랑』에 따르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신앙의 순수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놀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아놀드는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하나님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고, 39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의해 국교로 확정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으며, 이후 기독교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라 규정하였다.

요약하면, 아놀드에게 있어서 중생이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한 회심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살아있는 믿음생활을 영위하는 일련의 영적인 정화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인간 영혼은 이러한 점진적인 영적 정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전환이 일어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아놀드가 얘기한 인간 영혼의 중생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중생은 내적 인간의 참된 경건의 징표이요, 그래서 참된 그리

스도교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요소인 것이다.

V. 나오는 말

교회 경건주의자인 슈페너의 중생 이해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의 칭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칭의의 객관적이고 법정적 의미 보다는 칭의의 체험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칭의 대신에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회심 경험을 보다 강하게 부각시켰다. 슈페너의 보다 큰 관심은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보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개신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슈페너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과 신앙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급진적인 경건주의자 고트프리드 아놀드는 점진적인 과정으로서의 중생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구원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중생 이해는 더 이상 죄의 용서라는 의미로서의 칭의 보다는 인간의 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중생 과정을 통해 인간 영혼은 옛 아담이 죽고 새로운 인간이 형성되고 신적 형상의 완전함으로 새로워지게 된다. 이러한 아놀드의 중생 이해는 결국 죄의 용서라는 칭의 보다는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의화(義化)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63) *Die Erste Liebe*, I, 8, 4, 63.

64) *Die Erste Liebe*, I, 6, 15f, 54.

65) *Die Erste Liebe*, I, IV, 6, 518f.

66) *Die Erste Liebe*, I, 19, 1, 131.

참고문헌

1차 자료

- Arnold, Gottfried. *Die Erste Liebe, Das ist: Wahre Abbildung Der Ersten Christen nach ihren Lebendigen Glauben und Heiligen Leben […]*. Frankfurt a.M. & Leipzig³, 1712.
- Luther, Martin. Weimar Ausgabe 56, 39, 8f. (Römerbriefvorlesung 1515/1516)
- Spener, Philipp Jakob. *Christliche Bußpredigten II*. Frankfurt am Main 1686³, 1700.
- Spener, Philipp Jakob. *Der hochwichtige Articul von der Wiedergeburt / Dero Ursachen / Mittel / Art / Pflichten / Würden / Kennzeichen und übrigen dahin gehörigen Materien … In sechs und sechzig Wochen-Predigten …*. Frankfurt (Main) 1695, ²1715.
- Spener, Philipp Jakob. *Theologische Bedenken I*. 1, ³1712.

2차 자료

- Brecht, Martin. "Einleitung." *Geschichte des Pietismus Bd.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Brecht, Martin. "Philipp Jakob Spener, sein Programm und dessen Auswirkungen." *Geschichte des Pietismus Bd.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297-319.
- Hirsch, Emanuel. *Geschichte der neuern evangelischen Theologie im Zusammenhang mit den allgemeinen Bewegungen des europäischen Denkens*, II, 1951.
- Kantzenbach, Friedrich Wilhelm. "Gottfried Arnold." In *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 7: *Orthodoxie und Pietismus*, Stuttgart 1982.
- Lohse, Bernhard. *Luthers Theologie in ihr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in ihrem systematischen Zusammenhang*, Göttingen, 1995.
- Lutherans and Catholics in Dialogue VII, *Justification by Faith*. Ed. H. George Anderson, T. Austin Murphy, Joseph A. Burges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 McGrath, Alister.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From 1500 to the Present Day*.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Moeller, Bernd. *Geschichte des Christentums in Grundzügen*, Göttingen⁶ 1996, 303.
- Peschke, Erhard. *Speners Wiedergebartslehre und ihr Verhältnis zu Franckes Lehre von der Bekehrung*. In *Traditio-Krisis-Renovatio aus theologischer Sicht*, Festschrift Winfried

Zeller, 1976.

- Peters, Albrecht. "Rechtfertigung in der Reformation." *Einführung in die Lehre von Gnade und Rechtfertig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141-156
- Schmidt, Martin. *Wiedergeburt und neuer Mensch*. AGP 2, 1969, 129-168; 169-194.
- Schneider, Hans. "Der Pietismus." Thomas Kaufmann und Raymund Kottje. Hgg. *Ökumenische Kirchengeschichte*, Bd. 2. Darmstadt, 2008, 505.
- Schneider, Hans. "Der radikale Pietismus im 17. Jahrhundert." *Geschichte des Pietismus*, Bd. 1, Göttingen 1993, 410.
- Schneider, Hans. "Gottfried Arnold in Gießen." Dietrich Blaufuß und Friedrich Niewöhner. Hgg. *Gottfried Arnold (1666-1714). Mit einer Bibliographie der Arnold-Literatur ab 1714*. Wolfenbütteler Forschungen 61. Wiesbaden 1995, 277.
- Schneider, Hans. *Gottfried Arnold: Die Erste Liebe*. Kleine Texte des Pietismus 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2, 9-15.
- Wallmann, Johannes. *Der Pietismus*, Göttingen 2005, 21; 28-29; 76-79.
- Wallmann, Johannes. "Wiedergeburt und Erneuerung bei Philipp Jakob Spener", in: PuN 3 (1977), 7-31.
- 박종소. "괴테와 『교회와 이단의 역사 Kirchen- und Ketzerhistorie』(1699-1700)." 「한국독일어 문학회」 15 (2007), 23-42.
- 이상조. "고트프리드 아놀드(Gottfried Arnold):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신학적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논의." 「한국교회사학회」 30 (2011), 87-120.
- 이성덕. "고트프리드 아놀드의 참된 교회의 이상과 교회사 비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 (2010), 109-131.
- 지형은. 『갱신, 시대의 요청』. 서울: 한들출판사, 2003.